

##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식 축사

존경하는 경북도민과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얼마 전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오늘 또 하나의 큰 경사를 맞았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상주 구간 완공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여주와 김천을 잇는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되면서 경기와 충청, 영남권이 더욱 가까운 이웃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관광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몫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7년여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건설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빈 여러분,

충북과 경북 내륙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잘 간직해 왔습니다. 문화의 시대,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그 발전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또한 큰 이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사람과 돈,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중부내륙 지역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서 각기 자생력을 갖고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문경지역을 비롯한 안동·영주 등 경북 북부권은 자연생태와 지식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관광과 생물산업, 첨단농업의 선도지역으로 집중 개발하고, 김천·구미·상주를 포함한 서부권은 디지털 산업과 수출·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충북지역도 바이오·레저·정보통신 같은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혁신형 산업발전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시원스럽게 뚫린 우리 앞의 고속도로처럼 이들 지역이 빠른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토대를 닦고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도 정부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해내야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과 뜻을 모아서 전국이 고루 잘사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갑시다.

오늘 개통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이 지역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